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Life Insurance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수호천사동양생명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동행

2019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동행

2019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



한코리아 Korean Foundation for World Aid

2019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

한코리아 Korean Foundation for World Aid

Prologue



단일민족이라 해왔던 한국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유입으로 급격히 다문화사회화 되고 있으며, 다문화 혼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비중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으나,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문제,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등을 겪고 있으며, 그로인한 학업중단률은 전체학생 대비 두배가량이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2009년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국 교원자격증 소지자와 일정자격에 해당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언어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는 다문화 교육 거점 학교에서 활동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 중도입국 학생 통번역, 방과 후 언어 부진아 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의 기본 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언어강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현장에서 받는 급여나 근로계약형태, 처우 등은 여전히 타 강사에 비해 차별적이고 열악한 수준입니다. 다문화언어강사는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코리아는 다문화언어강사의 필요성 및 다문화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수호천사 동양생명의 후원을 받아 4년째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본 사례집은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해온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의 사업 내용 및 다문화언어강사와 다문화 학생의 이야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수호천사 동양생명, 관련 전문가 분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Contents

Acknowledgement

감사글 08

Business Introduction

사업소개 11

-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 멘토링 프로그램
- 수업연구 프로그램 & 발표회
- 주제별워크샵
- 사업평가회

Activities & Impression

활동사례 및 소감문 19

- 다문화언어강사 멘토링 참여 후기
- 다문화학생 멘토링 참여 후기
- 수업연구 참여 후기

> 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이하 "연합회")의
> 모든 선생님들은 2019년에도 한코리아로부터
> 각종 지원과 관심을 듬뿍 받았습니다.
> 교사수업연구 멘토링, 학생 멘토링, 주제별 워크숍,
> 수호천사 착한가방 응원키트 및 학교 기자재 기부,
> 수업 사례 발표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회장을 맡은 저를 비롯해 연합회의
> 모든 선생님들은 한코리아에서 지원해주신 각종
> 사업 덕분에 크나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
회장 **이 나 윤**

교사수업연구 활동은 그동안 쌓아온 교육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유익했다는 평이 높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고, 서로 조언해주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며, 질 좋은 수업 자료들을 만들 수 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울러 동료 선생님들간에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더욱 깊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수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일반인들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이 해마다 쌓여감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전문가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지식 재산으로 남긴다면 앞으로 다문화 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멘토링 사업에 참여해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저도 학생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는데, 아이들에게 공부 외에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또 그래야 공부도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각자 나름대로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이해하며 인정하고, 본인도 학교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제별 워크숍에서는 우수한 강사님들이 전문적이고 질 높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선생님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늘 발전하기를 꿈꾸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코리아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한코리아와 동양생명을 통해 두 학교에서 수호천사 착한가방 응원키트와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를 기부 받았습니다. 기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한코리아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환경까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업 평가회의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상장까지 챙겨주시며 격려해주셔서 그 배려심에 깊이 감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연합회 선생님들은 한코리아와 함께 열심히 다문화 교육에 매진할 것입니다. 저 또한 노력할 것이고 다른 선생님들 역시 애쓰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주시는 한코리아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행사에 갈 때마다 훌륭한 준비성에 늘 감탄하며, 큰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코리아와의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수호천사 동양생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와 연합회 임원들이 정성껏 노력하겠습니다.

12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13 멘토링 프로그램
14 수업연구 프로그램 & 발표회
16 주제별워크샵
17 사업평가회

Business
Introduction

사업소개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

다문화 교육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언어강사의 역량을 강화시켜 다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교육 현장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다문화 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세부 내용

구분	내용
1:1 멘토링	• 위기상황에 있거나 적극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게 다문화언어강사가 학업과 정서적 멘토링 제공 • 학습지도, 한국어교육, 야외학습, 문화 활동, 부모 상담 실시 • 멘토링 활동비 지원을 통해 멘토링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멘티와의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여 멘토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 학교에서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제공
수업연구	• 언어권별 다문화언어강사 소모임을 구성하여 수업연구 스터디 진행 •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업 지도안 작성 및 학습교재와 교구 제작 • 활동교육 및 수업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 다문화언어강사가 직접 개발한 수업 연구 내용 발표 후 자문 및 평가 실시 • 수업연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진행 • 연구교재 제작 및 공유
주제별 워크샵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강 및 워크샵 진행 • 현장전문가를 통해 이론보다는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수법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 • 교육 아이템 개발, 진로/상담기술, 강의법 등을 교육
사례집 제작	• 다문화언어강사의 경험기와 멘토링 사례, 다문화언어강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제작
평가회	• 사업 평가회를 통한 피드백 제공 • 우수 참여자 및 프로그램 시상식 • 다문화언어강사 활동사례 및 멘토링 사례 발표 및 공유시간 마련 • 수업연구프로그램 우수팀 수업시연 • 다문화언어강사 단합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9. 4. ~ 10.(7개월간)

참여인원
멘토 : 다문화언어강사 15명
멘티 : 다문화가정 청소년 20명

활동내용
위기상황에 있거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게 다문화 언어강사가 1:1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학생에게 학업뿐 아니라 정서적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1:1(또는 1:2)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15명의 멘토가 20명의 멘티와 함께 1년 간 학습지도, 한국어교육, 야외학습, 부모상담 등을 실시하며 멘티의 정서적 지지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업연구 프로그램 & 발표회






1 수업연구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9. 4. ~ 10.(7개월간)

참여인원
언어권별(중국, 일본, 몽골)
5개팀 총 19명

활동내용
다문화언어강사가 주체적으로 언어권별 소모임을 구성하여 수업연구 및 개발, 교재 및 교구 제작 등의 스터디를 진행



2019년 수언엽구 프로그램은 언어권별 다문화언어강사 소모임을 구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총 5개팀 19명이 참여하여 소모임 별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업지도안 작성 및 학습교재와 교구를 직접 제작하였는데요,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 중 다문화어어강사의 욕구에 부합한 만큼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 함께 공유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발표회

일자
2019. 11. 9.(토)

장소
CTS 6층 (구)한코리아 사무실

참여인원
다문화언어강사 38명,
심사위원 1명, 재단직원 3명

활동내용
다문화언어강사 소그룹 스터디를 통해 언어권별 수업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연구내용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 및 우수팀 시상을 제공



●●● 주제별워크샵

일자
2019. 8. 31.(토)

장소
CTS 9층 CGS 채플실

참여인원
다문화언어강사 53명,
외부강사 2명, 재단직원 3명

활동내용
다문화언어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학생 코칭법 교육 아이템 개발, 진로상담 기술, 강의법 등의 교육 주제로 전문가 특강 및 워크샵 진행



여름의 끝자락이자 가을의 시작인 지난 8월 31일, 다문화언어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제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기관인 동양생명에서 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교육을 진행해주었으며, 외부 전문강사의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좁은 시야를 세계로 넓히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진로 코칭법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의 강의법과 진로상담 기술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사업평가회

일자
2019. 12. 20.(금)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참여인원
다문화언어강사 40명, 동양생명 3명, 재단직원 4명, 외부강사 1명

활동내용
2019년 사업평가, 우수참여자 및 프로그램 시상식,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발표 및 멘티 소감발표, 다문화수업교구 전시회, 수업연구발표회 우수팀 발표 시연, 단합프로그램



지난 2019년 12월 20일. 2019년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 사업을 평가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2019년 사업평가와 우수참여자 및 프로그램을 시상하고, 사례발표와 학생들의 소감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수업연구프로그램 우수팀 발표시연과 교구전시회, 다함께 참여하는 단합 프로그램이 1-2부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양생명이 후원하고 다문화언어강사와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한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며, 본 평가회를 통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 다문화언어강사 멘토링 참여 후기
38 다문화학생 멘토링 참여 후기
54 수업연구 참여 후기

Activities
& Impression

활동사례 및 소감문



다문화언어강사 멘토링 참여 후기

남경민 선생님

●●● 1:1 멘토링

새로운 길, 나의 제2의 인생이 한국에서 시작한지 꽤 되었는데, 최근에 만난 그 학생은 러시아로 처음 유학 갔을 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감사 및 사과의 표현밖에 몰랐던 나는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수업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같은 반 친구들과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 수업도 눈치껏 따라다니고, 수업 시간은 늘 옆 사람의 책을 힐끗 쳐다보며 겨우 참여할 수 있었다. 언어가 잘 되지 않으니 하루하루 힘들고 외로움을 받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앞날이 깜깜할 뿐이었다.

그 때 마침, 나보다 1년 먼저 유학 온 베트남인 선배가 나에게 다가와서 잘 챙겨준 덕분에 기댈 사람이 생기고, 공부할 힘도 났다. 그 후로는 말이 잘 되진 않아도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언어에 더 관심 갖게 되었으며 공부하는 방법도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다.

멘티 ○○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시려는 부모님을 따라 올해 1월 한국으로와 3월에 6학년으로 들어왔다. 웃으면 반달이 되는 작은 눈과 포동포동한 볼을 갖고 있는 통통하고 귀여운 ○○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면 엄마와 아들 같다고 남편이 놀릴 정도였다.

처음 만났을 때, 중국어를 모르는 나와 한국어가 서툰 ○○은 파파고를 이용해 간단한 대화만 겨우 할 수 있었다. 때로 번역이 이상할 때는 둘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기도 하고, 손짓과 발짓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하루는 세계시민교육 수업으로 인해 ○○의 반에 들어갔는데, 날 보자마자 너무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다. 반가움도 잠시,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웃기만 하다가 중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 학생들이 일제히 ○○을 쳐다봤고 ○○은 무척 당황스러워 했다. 그 속에서 나와 반 친구들의 눈빛을 보며 얼굴이 살짝 빨개졌지만 다행히 싫지 않은 눈치였다.

나는 반 학생들과 담임선생님께 ○○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네 반은 다른 반보다 분위기가 좋았고, 젊지만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담임선생님과 사교성도 좋고 활발한 반 학생들 때문에 ○○의 학교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 번은 하교 후 ○○이 나에게 찾아와 알림장에 적힌 글씨를 보여주며 컴퓨터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짝이 ITQ기출문제를 꺼내 연습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말이었다. 우선 나는 ITQ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확인했다. ○○은 컴퓨터가 없다고 얘기하며 아빠한테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무작정 아버님께 전화해 컴퓨터가 필요하니 사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부모님께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는 네 의견을 말한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했다.

며칠 후, ○○아버님께서는 ITQ 기출문제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노트북을 갖고 학교로 찾아오셨다. 노트북을 보니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서 깔아준 후, 꾸준한 타자연습과 함께 기출문제를 큰 소리로 읽으며 따라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은 평소 학교가 끝나면 바로 국어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시장에 가서 일을 도와드린다고 들었다. ○○이 집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며 부모님의 교육방식이 너무나 궁금해졌다. 학기 초에 비해 학습태도도 좋아지고 어휘력도 늘어나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다는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를 멘토로 삼고 있는 ○○을 보며 뿌듯하기도 했다.

낯선 한국에 와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과 부모님을 보면서 참 대단한 생각도 들고, 이러한 학생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미소로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날아보았어요." 말하는 ○○를 보며, "지금 이 순간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기 위한 준비임을 기억해. 훌륭한 경찰이 되어 꿈을 이루는 널 생각하며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과 함께 간 실내 스카이다이빙 플레이스테이션





이서연 선생님 ●●● 1:1 멘토링

올해 처음 하는 멘토링 활동을 나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6학년 □□학생과 함께 했다. □□학생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와 생활하다보니 성격이 소심한데다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보였다.

처음 □□학생을 만나 멘토링 활동을 제의 했었을 때 모국어도 배우기 싫어하고 공부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공원 나들이, 문화체험 위주로 하자고 하였더니 조금은 수긍하는 태도였다. 도서관에 가서 궁금한 자료 찾기, 영상 보기, 물놀이장 가기, 영화관에 가기 등 수업은 매우 재미있어 하였다.

경기도 북부권이다 보니 국립 과학관 체험을 왕복 3시간 넘는 거리로 갔었는데 태풍, 지진 체험 등은 □□학생이 늘 자랑스럽게 이야깃거리로 말하곤 하였다. 또한 중학교 입학을 고민하고 있어서 친한 친구들이 희망한 학교나 집에서 근거리인 환경이 괜찮은 학교를 함께 알아봐주었다.

□□학생은 할머니와 살아서 학교의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했다. 방과 후 컴퓨터수업에 필요한 USB를 사주었는데 얼마 못가서 잃어버려 재 구입을 해주었고 멘토링 수업으로 컴퓨터자격시험을 보러 동행해주기도 했다. 교회서는 주말마다 만나다보니 어느덧 저와 친해져 스스럼없이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말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은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합류했다.

△△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보니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자주 친구들 땜에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타기를 즐기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은 자주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단호히 친구의 거절을 잘 못한다고 하여서 두 번 정도 친구들도 합류시켜 멘토링활동을 같이 하였다. 함께 중국어수업을 하고 롤리팡장도 갔었는데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어 우쭐해 보이기도 하였다.

멘토링 덕에 함께 한 친구들과 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니 나의 기분도 좋았다. 자주 친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워했지만 내년에도 꼭 하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기도 했다.

□□학생과 △△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니다보니 함께 할 이야기 거리도 많았고 금세 친해졌다. 가끔 □□학생이 선배 오빠답게 학교경험을 이야기 해주며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었다.

학교에도 중국어다문화 강사가 있다보니 중국어 수업도 함께 받고 있어서 내가 멘토링수업때 중국어를 가르치기가 훨씬 수월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두 아이와 함께한 멘토링 활동은 우리를 지루했던 서로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고 두 아이의 정서 안정과 욕구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자긍심 향상과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유용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더 재미있고 한층 다가갈 수 있는 멘토링 활동을 하고 싶다.











이우레 선생님 ●●● 1:1 멘토링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던 7개월..

난 10년 째 다문화언어 강사 일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멘토링 활동을 해마다 신청하고 있다.

이번 멘토링 활동은 4번째이다. 멘토링 활동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멘티들을 위해 나의 쉬는 시간을 줄여가며 체험활동을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과 체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서 서울로 1시간 30분을 출퇴근 하는 나는 주말이면 서울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지만 의미 있는 멘토링 활동을 위해 체험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체험활동은 멘티들에게 오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2년 전에 서울투어를 했던 것을 그때 멘티가 아직도 기억하고, 다시 멘토링 활동 하고 싶다는 말을 한적 있었다. 이번 나의 멘티는 두명이다. 학년과 성격이 너무나 다른 멘티지만 7개월 동안 사이좋게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

체험활동을 하면서 ☆☆☆의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고 있었다. 체험활동 중 아쿠아리움 갔다 왔던 날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멘티의 어머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 엄마에요. 사진 너무 예뻐요. 선생님 감사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난 깜짝 놀랐다. 3년 동안 문자도 전화도 안 되었던 어머님의 문자... 오늘 하루 종일 힘이 들었던 것이 싹없어졌다. 너무 기뻐서 반갑다는 인사말과 뵙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문자를 보냈다.

"ㅎㅎ 네 시간 있으면 한번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 날에 이런 문자를 보내고 다시 연락도 없지만 난 기뻤다. 사진 몇 장으로 그 동안 두드렸던 어머님 마음 드디어 열리고 있다. 아직 못 봤지만 ☆☆☆멘티가 졸업하기 전에 어머님을 뵐 수 있겠죠?

두드림의 결과 (3학년 멘티 ☆☆☆)

☆☆☆멘티 어머님은 베트남분이시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입학식 빼고 한 번도 학교에 들어온 적이 없다. 어머님은 담임 선생님도 나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말을 못해서 그렇단다.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 봤지만 아직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다행히 ☆☆☆멘티의 아버님이랑은 연락을 한다.

넌 몽골인이다. (2학년 멘티 ◇◇◇)

◇◇◇은 몽골에서 태어나 두 살 쯤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은 한국어도 잘하고, 한글을 읽고, 글쓰기도 잘 하지만 몽골어는 모른다. 부모님들도 어릴 적에 한국에 와서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갖춘 몽골인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고 했다.

부모님들은 언젠간은 몽골에 돌아가야 하니까 몽골어도 가르치고 싶다고 하지만 ◇◇◇은 거부를 해서 말도 못 건넨다고 했다.

작년 1학년 때 "몽골어 배우고 싶지 않아?" 물어 봤지만 싫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나가기로 했다. 몽골어 인사말<샌베노>, 간식 받고 감사합니다 <바야를라>부터 시작했다. 지금은 몽골에 대한 궁금한 것을 자주 물어보고 관심이 생기고 있다.

한국어도 잘 하고 친구들과 학교생활도 문제없이 지내고 있지만 ◇◇◇이가 태어난 나라, 언어를 꼭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가르치고 있다. 몽골어를 배우는 것은 ◇◇◇이 꼭 해야 할 숙제 중의 하나이다. 나도 ◇◇◇과 몽골어로 대화하는 날이 꼭 오길 기다린다.

할 수 있다 ◇◇◇!





김옥금 선생님

한코리아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원된 예산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사고, 문화체험도 함으로써 학교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다문화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네에이꼬 선생님 ●●● 1:1 멘토링

저도 역시 멘티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멘티의 일생을 좌우하는 만큼 지금 초등교육 시기의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멘티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아 이 가정을 응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와 유끼꼬 선생님

지금 학생의 모습을 보면 학기 초와 많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제일 많이 달라진 모습은 역시 자신감입니다. 한글을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는 읽고 쓸 수 있다! 는 그 자신감! 그것은 교실에 들어오는 인사의 목소리 하나만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힘든 날도 있었지만 끈~기 있게 꾸준~히 하는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했습니다. 학생의 능력에 맞춰서 기다리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작업이었지만 저의 지도에 따라서 공부해준 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고 자신 있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한글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저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학생지도와 동시에 학부모와의 상담의 중요성도 실감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이 학생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마노바 잠자골 선생님 ●●● 1:1 멘토링

주기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가르쳐준 내용을 멘티가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알고 있다가 멘티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저 역시 배우고 발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올해 활동을 보완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야마네노리꼬 선생님

멘토링에서 중요한것은 멘티가 어려울 때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3학년이 되어 학교 공부가 어려워졌고,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어도 학년에 맞게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학생이 말할 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힘든 일을 극복한 후에 생긴 좋은 결과가 학생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활동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르갈 선생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멘티에게 친근한 멘토가 되고 멘티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과수업뿐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 또는 멘티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겸해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선 멘티를 위해 옆에서 친근하게 도와줄 때 안내해주고 그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더 활발하게 많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멘토링

아키야마 야스코 선생님

열심히 활동한 덕에 올바른 학습 습관을 심어준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공부하러 가는 날을 매주 기대하고 있고 선생님 보러 학교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습 습관이 잘 안 되는 아이는 먼저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앞으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태도를 향상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코리아에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만들기 자료나 어린이날 선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선물한 구두를 신고 와서 이건 사주신거라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와 신뢰관계를 맺고 마음을 교류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래야지 학습을 할 의욕도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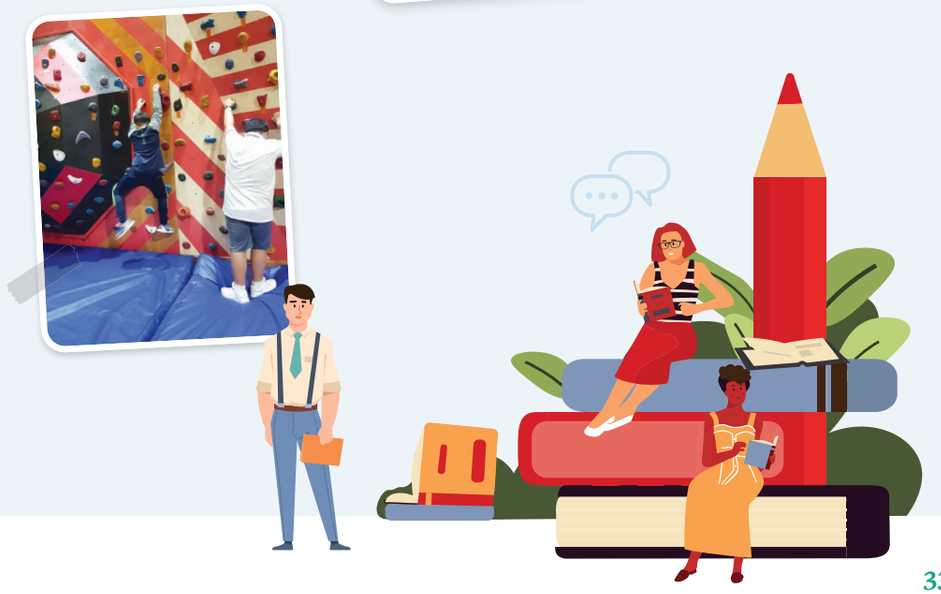


이나윤 선생님 ●●● 1:1 멘토링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이들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서로를 좀 알고 친해지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명숙 선생님

처음 멘티들과 활동을 시작할 때는 좀 서먹한 면이 있었지만 활동을 이어가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활동 시간 잡기가 어려워 짧은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도움이 되는 유익한 활동이 되려고 고민하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엄마와 아들 사이로 여기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 멘티들의 엄마만큼은 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지도하고 때로는 이모처럼 걱정하고 다독이고 격려하는 멘토가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멘티들을 보면서 그 동안의 활동들에 보람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배경으로 찍은 두 멘티의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예쁠 수가 있나 싶습니다. 함께한 활동들은 저에게도 오래도록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임나탈리야 선생님

고등학교에 3년 근무를 하면서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저에게 더 잘 맞습니다. 초등학생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고등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이 더 잘 됩니다.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했는데 저는 모두 다 도와주고 싶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없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도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학생 두 명을 보살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티 학생들하고 상의를 하고 가끔 다른 학생들과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착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덕분에 활동자체가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 1:1 멘토링

바야르토야 선생님 ●●● 1:1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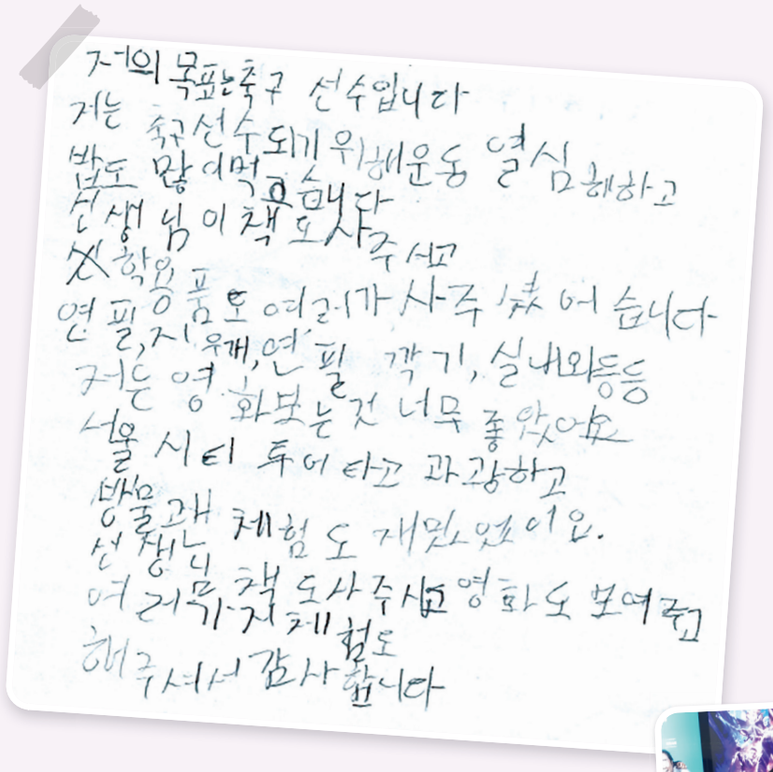
7개월간 두명의 멘티들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문화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영화관람, 지역축제, 워터파크, 롯데월드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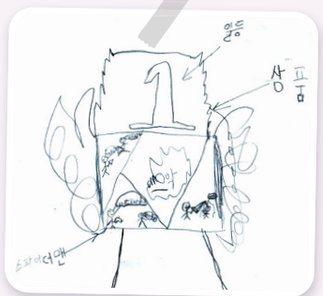


다문화학생 멘토링 참여 후기

●●● 1:1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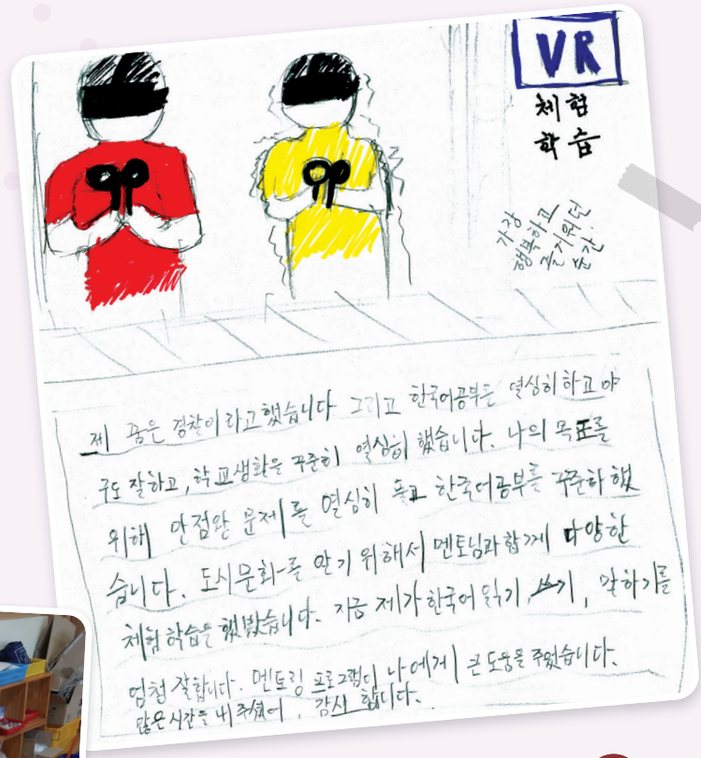


멘티 허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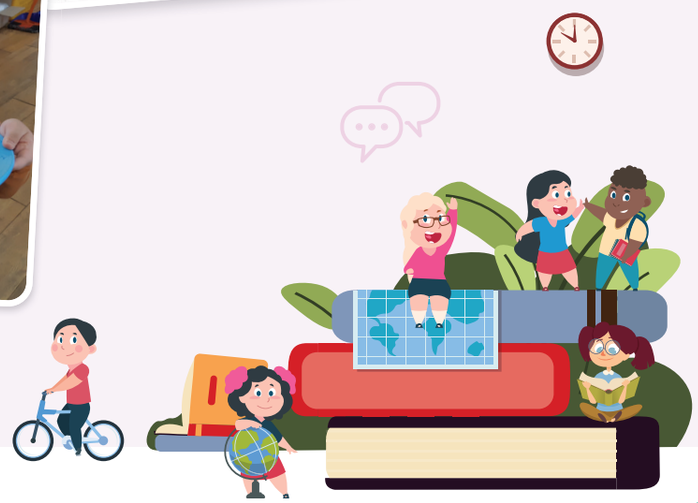




멘티 김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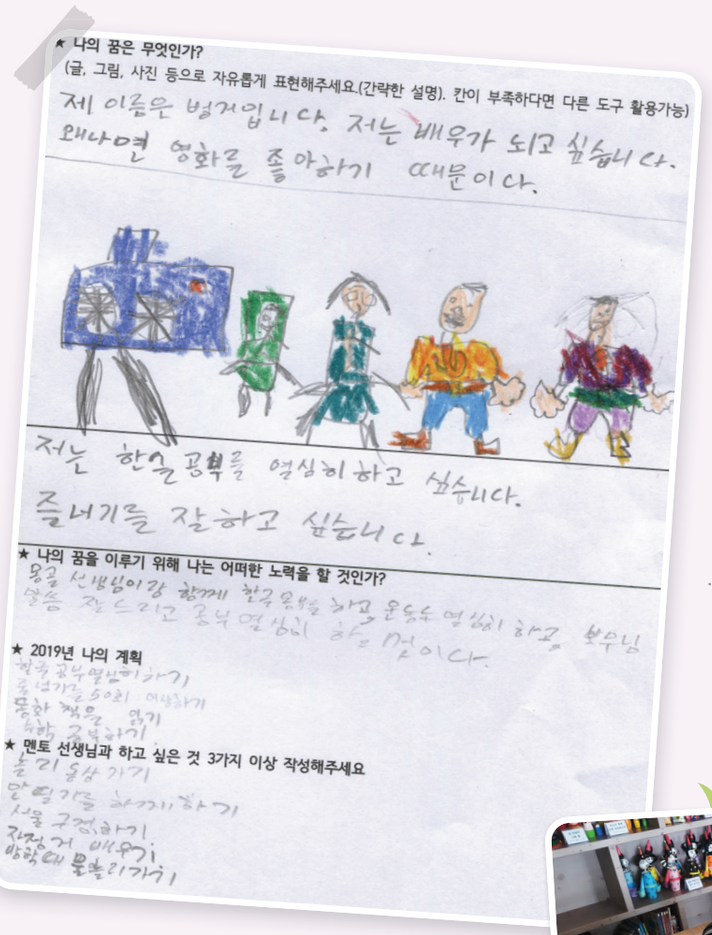




●●● 1:1 멘토링

★ 나의 꿈은 무엇인가?
(글, 그림, 사진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간략한 설명). 칸이 부족하다면 다른 도구 활용가능)

제 이름은 범거입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저는 한글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즐거기를 잘하고 싶습니다.

★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몽골 선생님이랑 함께 할국 문화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부우님
말씀 잘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다.

★ 2019년 나의 계획
한국 공부 열심히하기
즐거기를 5이하 이해하기
동화 책을 읽기
숙제 그만하기
놀기 실상 가기
맛있게를 요리하기하기
서울 구경하기
자전거 배우기
방학때 문놀이가기

★ 멘토 선생님과 하고 싶은 것 3가지 이상 작성해주세요

멘티 범○





아이스크림도 먹고 떡사준도 봤다
또 햄스터도 보고 중국어, 햄버거어러
가지 먹고 배우고 했다
서울에 놀러 가고 싶다

★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매일 학교공부 집에 와서 익히기

★ 2019년 나의 계획
영어공부 많이 할것

★ 멘토 선생님과 하고 싶은 것 3가지 이상 작성해주세요
1. 문화체험 하기
2. 도서관 자주가기
3. 재미난 영화보기

멘티 이○○

2019년 10월 22일 ~ 28일
4개월 동안 체험을 여러가지를 했다.
중국어 배우기, 영화보기, 내가 필요한 관련도 샀다
정림이 오빠랑 놀이터 에서도 놀아 보았고
정림이 오빠랑 친구도 이랑 롤러장도 갔다
정림이 오빠랑 영화(엑시트, 토이스토리 영화를 봤다
선생님의 집에서 중국어 공부 하고, 학교 얘기도 했었고
친구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하고 싶다
참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신청해서 여러가지 체험을
하고 싶다.

멘티 친○○



1:1 멘토링



멘티 강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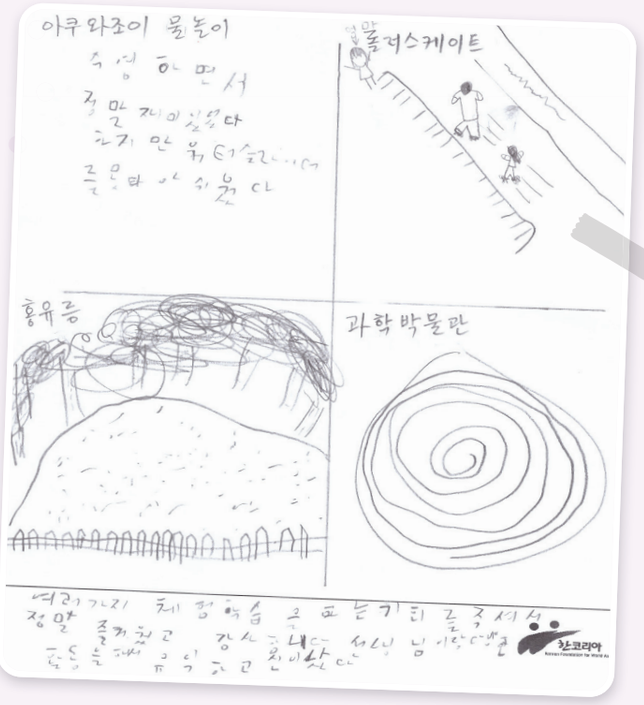


나는 오늘오랜만에 키자니아를 갔다 근데사람이 많아서 오래걸렸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거를 먹는 다니까 기분이 좋았다그리고 기다리면서 샘과 선생님이 핫도와 사과주스를 사 주셨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었다, 너무나도 맛있었다 근데 민형이 언니가 빨리 가야돼서 집에 갔다.

오늘 민형이 언니랑 같이 국기 팔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만드는 방 법은 간단하고 쉬었다. 근데 국기 팔지를 만들때 자꾸 떨어져서 짜증이 조금 났다 그리고 다만든 후에사진을 찍었다 너무나도 예쁘게 잘 나 왔다

멘티 아OO

멘티 ㅈ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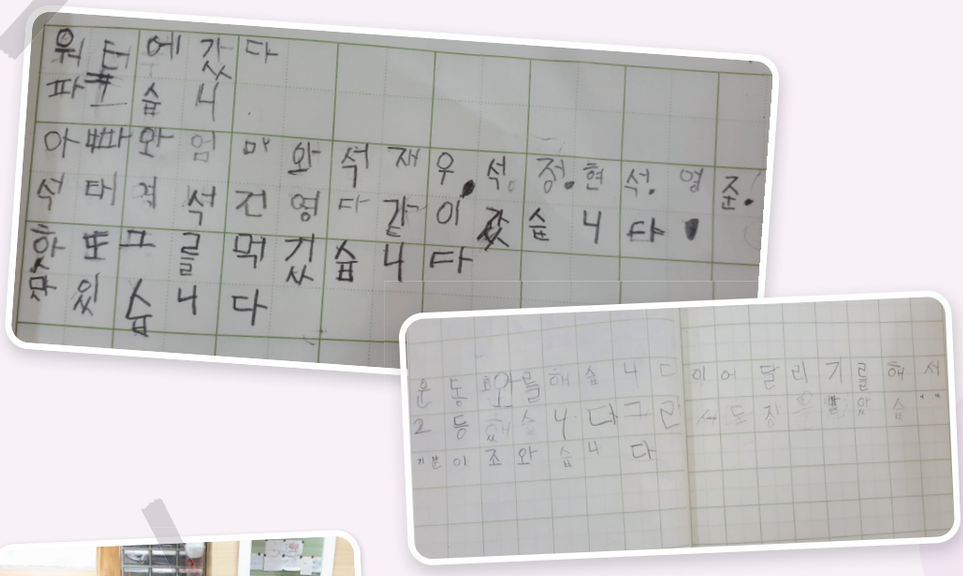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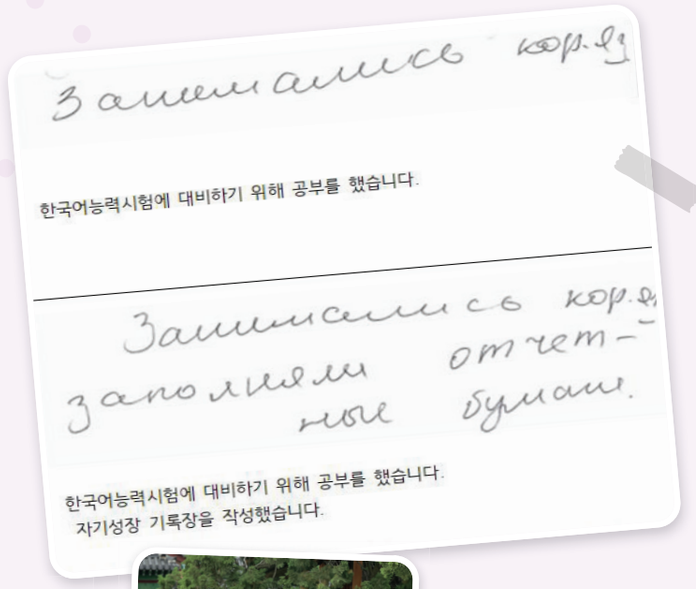




●●● 1:1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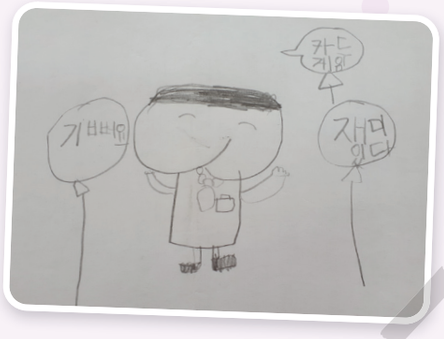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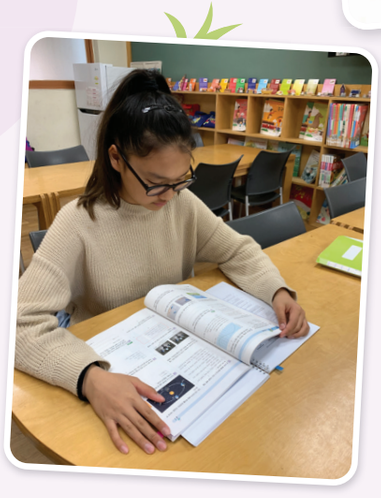
멘티 문OOO





멘티 석OO









●●● 1:1 멘토링

제일 재밌었던 것은 교보문고에 갔던 것이다
거기 서 책을구경하고 책을샀다 다음에다시 멘토링을
하게돼면은 또서점에 가고싶다

가장기억에남는것은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 나갔던 것이다
내년에도또 나가고싶다 다음에는 "나의꿈"이아닌
다른제목으로 나가고 싶다

2019년에는책을 더많이읽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책을많이읽으면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일본어책도 한국어책도 많이읽고싶다

멘티 김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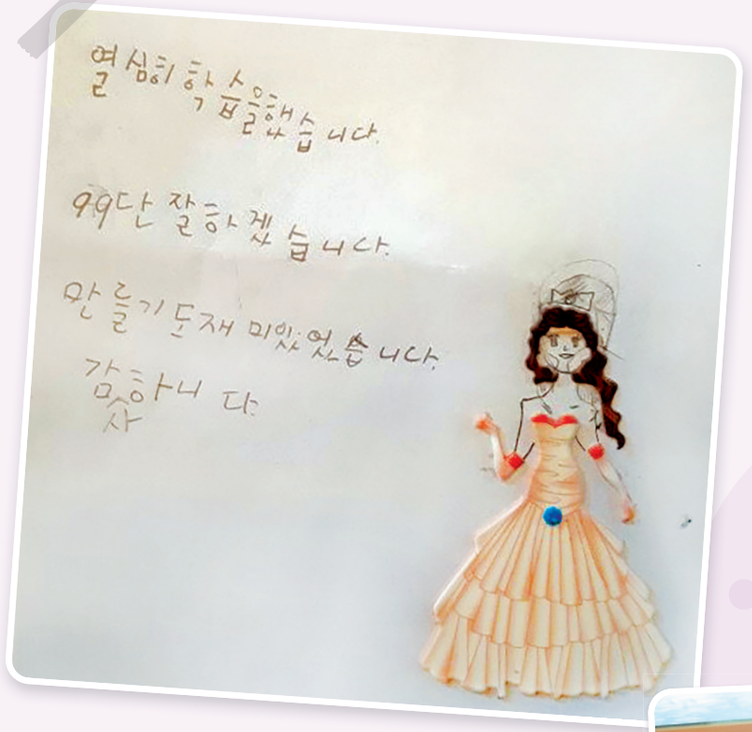
멘티 바OOO







1:1 멘토링



멘티 이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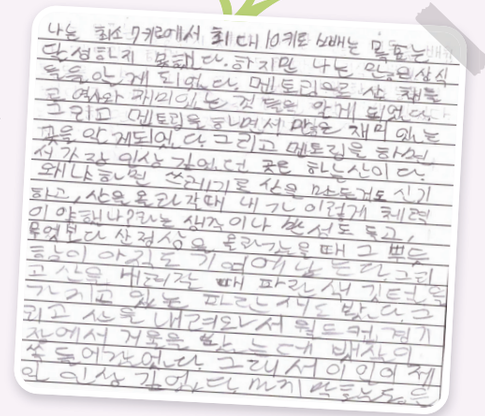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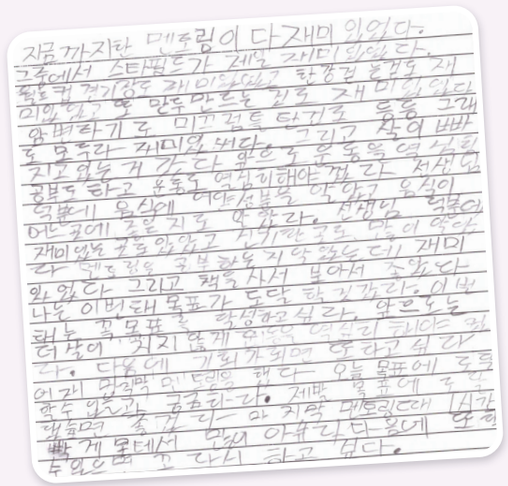






멘티 강OO





멘티 양OO



1:1 멘토링

저의 2019년 목표는 한국어 TOPIK 2급 받는거예요.
저의 꿈을이루기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토픽 2급 . 받았어요.
이활동은 저 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이 활동 때문에
저는 한국 전통문화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대학 가려고해요. 더열심히 공부
해서 꼭 꿈을 달성할거예요. 저는 이 활동 한테 너무
감사해 요.
저는 우리 선생님 께 도 감사해요 우리선생님을
만나서 행운이에요. 한국어 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한 테 걱정도많이 했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한 코 리 아 동양생명 사랑해요! 감사 해요!!!

멘티 장OO



저의 꿈은 관광가이드가 되어 한국에 온 중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해 좀 알수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엄마와 한국에 왔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관광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매일 한국어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정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과 함께 여러가지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버 활동 마다 한국의 문화 와 지식을 많이 알게해 줘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가끔 격정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선생님의 헌신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활동을 하면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 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관광전문지식을 열심히 배워 저 꿈을 이룰 것 입니다. 저는 한국을사랑 하고 저를 도와준 모든 선생님들을 사 랑 할 것입니다.
정선생님 께서 이 활동은 한코리아 와 동양생명이 도와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코리아 와 동양생명 모두 감사드립니다!

멘티 장OO





2017년 10월 12일(토)에 서구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나라의 음식 먹어보고 각기 나라의 음식도 먹었습니다.
너무 오래 줄을 안 먹어서 눈물 날뻔 했습니다 조금 그게 힘들었습니다.
또한 축제가 끝나기 백만송이 갈비 가봤습니다. 라반걱정 봉사활동하고 교보문고 갔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 사고 만족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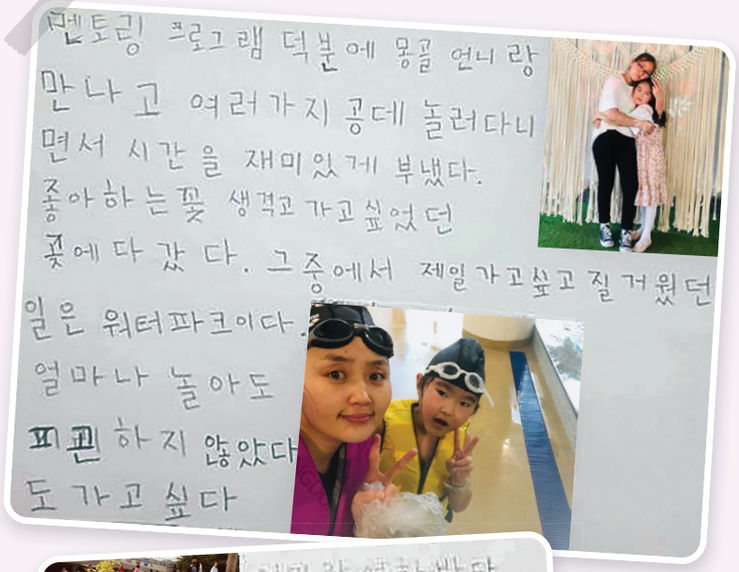
멘티 유OOOOO

이태원 처음 가봤는데요, 되게 예쁘고 맛있는거 많은 곳이더라고요.
지구촌축제에서는 여러나라 음식을 파는 축제입니다. 근데 사람들 많아서 음식을 사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음식을 많으로 갔습니다.
밥먹고 가면 가서 음료 마시면서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고 싶어 갔습니다.
공휴일에 갔을때 한-러 우정의 축제에 참석을 했던 우리 선생님한테 도와줬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전통 음식 '마트로스카'인형을 만드는 체험이었습니다. 아기들 와서 많이 했었는데 도와주는것 귀여워서 도와주는것 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축제끝나고 교보문고 가서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달 생일이여서 선물도 받을 있어 너무 감사해요.

멘티 텐OOO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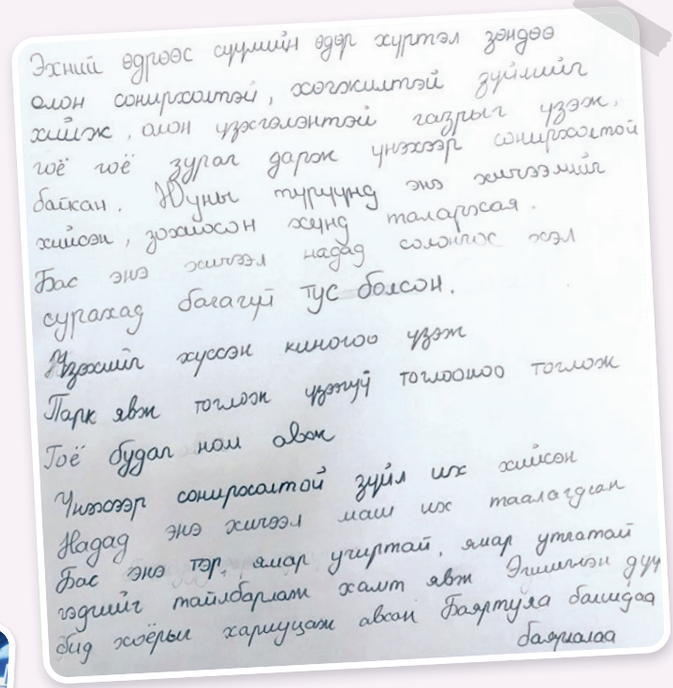
1:1 멘토링





멘티 에OO





멘티 아OO





수업연구 참여 후기



••• 수업연구 1팀

나리타마미
아키야마야스코
아베미유키

우리 팀은 일본선생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로서 평소에 다문화학생 뿐 만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다문화 이해수업이나 일본어 한국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 제1기 멤버들이고,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지 11년 째 입니다. 선생님들이 각자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수업방법을 연구 개발하면서 보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우리 자신도 다문화가정이고 두개 나라의 언어 문화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서로 수업내용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면서 다시 다문화사회가 무엇인지 다문화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수업 실천에 관한 서적을 구입해서 각자 읽으면서 생각이나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실재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색하면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다문화교육에 관한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읽고 다음 주에 만나서 토론하고 좋은 수업은 무엇인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한 부분이 많아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문화교육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화자와 청자가 서로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까지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말과 행동 후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통해 감각을 기르고 협동 작업을 하면서 공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수업은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새로운 개념이지만 미국에서는 흔한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받는 장본인이기도 하니까 수업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할극을 이용한 수업은 상대입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더 개발해서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일본의 다문화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이용해서 한국의 학교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생님이고 다문화가족으로서 살아온 경험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지만 주부이고 엄마이기도 하니까 정말 시간을 내서 미팅을 갖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연구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선생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없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감하는 부분,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팅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코리아 사업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기회가 있으면 수업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수업을 실천하기 까지 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문헌을 더 구입해서 더욱 깊이 연구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싶습니다.

팀원이 되어주신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소중한 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우레
남경민
자르갈



오늘은 1교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서둘러서 학교에 도착했다. 6학년 수업이라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6학년 수업을 항상 1학기 때 했었는데 담임선생님의 요청으로 2학기에 하게 되었다.

6학년 수업을 2학기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쉽지가 않다. 학생들은 졸업이 다가올수록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 학교에 8년째 근무하고 이 학생들을 1학년 때부터 수업을 해왔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이번년도 6학년은 우리 학교에서 소문 난 활발한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책상에 앉아서 하는 학습적인 수업보다는 활동 및 학습교구를 활용해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다문화수업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2019년 동양생명과 한코리아의 지원으로 수업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은 도시에 사는 동료들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나의 목표에 맞는 수업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여섯 번의 모임을 통해 수업 아이디어 및 자료개발을 의논하고 자료공유를 했다. 혼자서 고민하고 부딪히는 것 보다 '같이'라서 서로 배우고 결과도 두 배였다.

"신나게 놀면서 배울 수는 없을까?"

난 작년에 아이디어를 얻고 시작했던 '여러 나라 국기,' '세계수도 송'을 활용한 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 단원을 계획했다.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졸지 않는 다문화수업을 하는 것이 꿈이다.

수업연구를 여러 나라 국기와 수도를 활용할 수 놀이와 활동, 학습지를 개발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직접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교구를 많이 찾고 수업에 활용했다.

••• 수업연구 2팀

'세계의 국기와 수도 송' 단원을 4차시로 설계했다. 1차시 여러 대륙의 다양한 나라의 국기, 2차시 노래로 배우는 각 나라의 중심 도시 수도. 3, 4 차시부터 선생님들이 학년의 특징에 맞는 활동과 놀이를 선택하며 수업을 한다. 정리를 하는 3, 4차시의 수업목표는 학생들이 1. 2차시에 배웠던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와 수도를 완전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

3, 4차시 수업에 활용할 만들기 5개(국기 배지, 핸드폰 줄, 만국기 팔찌 만들기, 국기 냉장고 자석, 국기 깃발), 놀이 3개(국기 딱지놀이, 국기 도미노 쌓기, 국기 카드놀이), 활동지 3개(수도와 나라이름 퍼즐 만들기, 초성 퀴즈 맞추기, '난 알아요!' 빈 칸에 알고 있는 만큼 쓰기) 가 있다.

※ 단원을 마무리 하면서 하면서 학년에 맞는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수업연구 활동 마무리

다문화 강사들은 2009년부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문화수업을 하면서 우리를 알리기 시작되었다. 10년 동안 힘들었던 순간에 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신 한코리와 동양생명이 있었기에 다문화언어강사가 역량이 강화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 할 수 있었다.

다문화언어 강사들이 학교에서 자료실 및 준비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학교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강사가 자비로 수업 준비를 한다. 저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우리들에게 학생 멘토링 활동, 수업연구 프로그램, 주제별 워크숍 등을 한코리와 동양생명에서 해 주셔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연구 활동을 동료들과 해서 기뻤다.

이번의 연구 활동으로 완성 된 '세계 여러 나라 국기와 수도' 단원을 다문화강사님들이 많은 수업을 하고, 더 좋은 활동과 학습지를 덧붙여서 멋진 수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학교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만나서 자료 만들고, 수업 아이디어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생각해 왔던 일을 마무리 하는 느낌은 다른 무엇보다 보람이 컸다.

다음에도 이런 지원이 계속된다면 몽골문화 수업, 몽골어 이중 언어 교제를 만들고 싶다. 같이 연구 활동 했던 팀원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한코리와 동양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이해영
장리리
이상금
먼리리



서울다문화언어강사는 초,중,고등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펼치고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국어권, 일본어권 등 강사는 학교에서 제2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연구 3팀은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 수업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어 교수법-활동 중심의 수업'을 주제로 1년간 함께 활동했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는 전일제 강사로서 수업연구를 하려면 평일 방과후나 주말 개인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에 우리는 도시락을 싸서 '유료 중국어 보드게임' 강의현장에서 온종일 함께 보냈습니다. '비밀편지 쓰기', '상자 속의 정체를 파헤쳐라', '마술을 통한 중국어 강의', '신발 짝 맞추기' 등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강의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각자 중국어 수업에 접목할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했고, 활동 및 교구 제작법을 상의하기 위해 식당, 커피숍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동 도구를 펼쳐놓고 기억을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멘토를 담당한 선생님은 멘티에게 중국어 강의 스케줄을 정기적으로 안내했고 멘티 또한 멘토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락했으며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퇴근 후 멘토링 모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水果拌拌拌！섞어라, 섞어 (과일 파트)'로 수업계획을 짜는 중에 놀이방법을 잊어 수업계획이 중단되었을 때, 멘토링 단체 대화방에 지원요청을 올리면 팀원들은 하교 후 다문화교실을 찾아 함께 기억을 더듬으며 놀이방법을 재정비했습니다. 그중 멘토링 사업 지원금으로 구입한 '폭탄게임' 교구는 중국어 수업과 적절한 접목을 통해 학생들이 즐겨 찾는 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 수업연구 3팀

열정에 넘친 수업연구로 정적이 깃든 학교는 유일하게 다문화교실에서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흘러나왔고 교실에서는 웃음 섞인 훈훈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종일 수업에 방과 후 수업연구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피곤할 것도 같았지만 다음 연구 시간을 정하며 마냥 즐거웠습니다.

이번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 멘토링 사업을 통해 우리 팀은 중국어 강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강의의 질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중국어 수업연구라는 큰 과제를 이번 멘토링을 통해 함께 접근할 수 있었고 적잖은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이국땅에서 모국어 교수법을 연구하고 이 나라 청소년을 위해 훌륭한 모국어 수업을 펼칠 수 있게끔 꾸준히 도움을 주신, 우리 다문화언어강사들에게 키다리 아저씨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한코리아와 동양생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마치유카
수와유끼꼬
모리야마미즈애
스즈끼야스요
하타치주요



일본문화를 소개하면서 배우는 즐거운 일본어수업 자료를 제작하며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늘 강사들에게 고민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려운 일본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을까 입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쉽지만, 글자를 100개 정도 외어야 할 벽이 있고, 한자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도 글자 공부하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계속 한글에 의지하며 1년이 지나도 일본어 글자를 외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본문화를 재미있게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따분한 글자공부를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교재개발에 나섰습니다. 아 이 우 에 오부터 순서대로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함께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접근하는 것이 몇 배 수월히 배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교재를 개발하면서 시범 삼아 5월부터 인천 신송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일본 글자가 사실은 왕인이라는 한국 학자를 통해서 전달된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부터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처럼 한자로만 문장을 썼었지만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한자가 복잡해서 안 예쁘다고 생각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약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행이 되어, 그 중에서 잘 만든 글자가 지금 히라가나, 카타카나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글자를 의미가 있는 단어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알려준 글자는 이른 시간이란 뜻을 가진 おはよう (아침 인사)였습니다.

1년 동안 문화를 기반으로 글자와 새로운 표현을 가르쳐 보니 확실히 아이들이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제가 칠판에 일본어를 쓰면 본인 스스로가 노트에 적곤 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지나고 나서 학교에 가니까 정치적인 양국간의 갈등이 한참이었던 때라, "일본과 한국이 입장이 달라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장할 수 밖에 없고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대립하게 된다. 하지만 노래나 음악, 습관, 행사 등을 통해 공유되고 공감되는 마음은 우리 서민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본어 수업 때 문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문화를 멀리하지 말라. 서로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통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마지막까지 의욕적으로 공부해준 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처음 목표였던 자기소개를 일본어로 쓰고 배운 노래가사를 일본어로 적고 그림을 그린 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수업은 일본어로 된 대본을 가지고 역할극하기 입니다. 당사자인 아이들도 담임 선생님들도 놀라울 정도로 일본어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번 교사 멘토링을 통해서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던 시간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구입한 교재는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수업 때 활용해보았는데, 잠시 머리를 시키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유익한 워크샵과 교사멘토링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코리아와 동양생명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수업연구 4팀

참여 선생님 후기

히타 치즈요

교통수단을 알아보는 수업 때 도라에몽 일본여행 게임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냥 교통수단을 배우는게 아니라 여행게임을 하면서 배운 말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장소를 지도할때도 세계지도를 보여주면서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리야마 미즈애

색깔 수업 때 도블카드를 사용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써보지 못 한 교재를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학생들도 새로운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니까 재미있어하고 집중력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색깔 수업 말고 동물, 숫자 등 여러 수업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와 유키코

학생들이 동물카드게임에 많이 흥미를 느끼고 그 게임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동물 이름을 외웠습니다. 정말 놀랍고 게임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돈을 배우면서 주사위 놀이를 하니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은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은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수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즈키 야스요

동물카드게임으로 분위기도 살고 미국에서 만든 게임이라 외래어가 많은 동물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동물이름을 카타카나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카타나카로 몇 번 쓰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으니까요.

김옥금
이서연
단가옥
김란







목적

교재 “맛있는 어린이 중국어”로 과목별, 학년별 교육 관련 수업 내용 연구함으로서 용이하게,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여 학생들의 참여도, 흥미도, 성취도를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내용

팀원	회차	일시	활동내용
김옥금 김란 단가옥 이서연	1	4. 3.(수) 18:00~21:30	• 회기별 연구계획 작성 • 교재 선택 (맛있는 어린이 중국어) • 수업구성 재료 구매 계획
	2	4. 27.(토) 14:00~17:00	• 색깔 한자 이름과 그림카드 만들기 • 협동 수업 공유
	3	6. 6.(목) 12:00~17:00	• 자석병음 만들기 • 병음 노래 공유
	4	7. 25.(목) 17:30~21:00	• 교통수단 명칭 게임 • 장소, 방향 게임으로 장소, 방향 말하기
	5	8. 31.(토) 14:00~18:00	• 직업 게임 • 직업과 관련된 물건 이름 알기
	6	9. 23.(화) 18:00~21:00	• 동물그림 카드 게임 • 동물이름 말하기

●●● 수업연구 5팀

협의

- 선생님들의 학교에서의 수업 현황 파악, 학년별 중국어 수업내용을 취합하여 여섯 번의 활동 모임 내여 계획서 작성
- 학생 참여수업을 위한 자료 만들기, 게임 활동을 개발. 협동 수업연구
- 필요 준비 재료 구입 및 만들기 자료 가격 등 논의

성과

- 중국어 수업을 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 방법과 수업재료 등을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수업을 높일 수 있고 교사로서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킴
- 수업 중 다양한 경험 노하우 공유,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즐거운 학교수업 조성







참여 선생님 후기

6개월의 수업연구 활동을 통해 선생님들은 서로가 공감되고 토닥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사는 곳이 멀고 주말에도 타 센터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과 주중에 대학원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 계셔서 시간 맞추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틈틈이 이용하 여 모임 진행에 열의를 보여주셨다.

김옥금

수업연구 활동비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산 부족으로 식대 값을 줄여 교구를 사는데 보탬을 하였어요. 모임활동 전에는 무미건조한 하루가 일상이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좋은 추억을 심어주었어요.

단가옥

수업연구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수업할 때의 어려운 점과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노하우를 전수받았어요. 또한 새로 연구된 수업방법을 바로 교육현장에 응용하여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구 활동을 통해서 수업의 부족함을 채우고 여유가 생겨 중국어수업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란

구두장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다 보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활동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해 낼 수 있어 뿌듯했어요. 그리고 개발된 게임들을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서연

다양한 사례, 고민을 이해하고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었어요. 게임 활동 연구개발을 통해 딱딱한 틀보다 학습에 재미 전달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수업을 교류하는 유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의 소감을 통해 함께 구상하고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동행

발 행 일 | 2019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재단법인 한코리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2길 11-6, 2층
Tel. 02)811-0999
Fax. 02)811-0061
Home. www.hankorea.or.kr

ⓒ 책 내용의 무단 전제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